

코레일 노사 교섭결렬 유감,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시행

- 평시대비 열차 운행률 70.1%, 광역전철은 주중 출근시 90%, 퇴근시 85%로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 한편,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12월 4일 0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제2차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행안부, 고용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업시 열차 운행계획 】

- 우선,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구 분	KTX	광역전철	새마을호	ITX-청춘	무궁화호	누리로	평균
파업시 계획 운행률	66.8%	75.7%	58.3%	58.5%	62.2%	58.8%	70.1%
필수유지 운행률	56.9%	63.0%	59.5%	59.5%	63.0%	63.0%	59.0%

-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 다만, 비혼잡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감소해 열차간 운행시격이 벌어져 열차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여유있게 출퇴근하거나 버스 등 타 교통수단 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T, GTX-A, 인천공항철도 등은 정상 운행한다.

【 대체 수송력 증강대책 】

- (버스)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 버스 운행 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을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고속버스,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구분	철도 예상 부족분	⇒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으로 수송	
		잔여좌석+증차	예비 공급량
고속철도	주중	4.4만석	5.6만석
	주말	10.5만석	5.1만석
광역철도	주중 출근시	3.7만석	4.2만석
	주중 퇴근시	5.7만석	4.7만석

고속버스 2.6만석+@
* 수요에 따라 투입 및 추가확보

전세·시내버스 7.9만석+@
* 수요에 따라 투입 및 추가확보

- (택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수도권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시작일 12월 5일(목) 04시부터 파업 종료일 24시까지 각 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해 상호간 단속유예를 통해 한시적 영업을 허용한다.

* (평시) 사업구역내 및 사업구역으로의 귀로에서만 영업 가능
→ (철도 파업시) 상호 사업구역 단속유예를 통한 한시적 영업 허용

- 이를 통해 서울에서 인천, 경기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이용수요에 따라 택시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역사 등 안전조치 】

- 혼잡시간대 주요 KTX환승역 등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필요 시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하는 등 **평시 이상으로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 또한, 철도안전감독관·철도경찰 등을 투입하여 권역별 주요 개소 위주로 차량·시설·관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철도국 철도운영과	책임자	과 장	강 욱 (044-201-3970)
		담당자	사무관	김경태 (044-201-4774)
			주무관	전완규 (044-201-4634)

